光日春秋

이 해 인

3월의 바람 속에

'3월의 바람 속에/ 보이지 않게 꽃을 피우는 당신이 계시기에/아직은 시린 햇빛으로 희망을 짜는 나의 오늘/당신을 만나는 길엔/ 늘상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살아 있기에 바람이 좋고/ 바람이 좋아 살아 있는 세상/ 혼자서 길을 가다 보면/ 보이지 않게 나를 흔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나는 먼데서도/ 잠들 수 없는 당신의 바람/어둠의 벼랑 끝에서도/노래로 일어서는 3월의 바람입니 다. 자작시 '3월의 바람 속에'

어느 해 봄 내가 받은 신학생의 편지에 '3월의 강변에서 불러보는 나의 누이 같은 수녀님'으로 시작하는 시적인 표현이 맘에 들어 몹시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다. 남쪽의 봄은 매화가 제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은 천리향이 핍니다. 바람 속에 향기가 먼저 말을 건네오면 '응. 알았어 벌써 꽃을 피웠다고? 정말 반가워!'하며 가까이 다가가서 향기를 맡곤 하였지요. 가을엔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지만 봄에는 왠지 마음이 들뜨고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 싫어했는데 갈수록 봄이 좋아짐은 아무래도 나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에겐 나도 덩달아서 그래요!'하고 맞장구 치지 않을수가 없답니다.나도 이제 봄이 좋아졌거든요.오늘 불쑥 처음으로 나를 찾아 온 젊은 독자인 그대와 함께 광안리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그대가 나에게 해 달라던 덕담을 이 편지로 보충할까 합니다. 날씨가 차갑고 바람 많이 부는 날은 하늘과 바다의 빛깔도 더욱 맑고 푸르고 투명함을 우리는 함께 체험했지요? 우리네 삶 역시 시련의 바람을 잘 이겨내야만 튼실한 아름다움으로 빛날 수 있음을 바닷 바람 속에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3월,내가 임의로 '봄비를 기다리며 첫 러브레터를 쓰는 달'이라고 명명한 3월을 나는 어느 달 보다도 좋아한답니다. 꽃샘바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시간을 아껴 써라. 하루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살아라. 잎샘바람은 또 말하네요.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죽지 말고 다시 부활하는 법을 배워라.

그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우리는 절제와 인내와 기다림의 덕목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식사시간이 관습상 더딘 프랑스의 식당가에서 후식을 끝까지 못 기다리고 자리를 뜨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빨리 빨리' 병에 대해 풍자한 기사를 읽은 일이 있답니다.

어느새 이 빨리빨리 병은 도처에 스며들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된 듯합니다

TV도 좀 더 지긋이 보지 못하고 쉴새없이 리모콘을 눌러대는 우리의 모습,인터넷의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초조해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버스나 전철이 조금만 더디 와도 버럭 화를 내곤 우리의 모습에서 조그만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나가서도 곧 그 다음에 이어 질 약속에 정신을 파느라 현재의 대화에 열중하지 못하는 모습, 한 집안의 가족들끼리도 예약을 해야만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숨차게 바쁜 것인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성급함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오늘 3월의 바람이 되어 그대와 나 자신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본의 아니게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 질 적마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쉿! 아주 조금만 기다리세요.아직은 식별이 필요하니!' 하고 어질게 달래줍니다. 절제의 미덕을 잃고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 마구 튀어나오려고 할 적엔 '잠깐! 두고 두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니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해요'하고 슬기롭게 달래줍니다. 이리하다 보면 함부로 치닫던 마음도 말 잘 듣는 어린이처럼 길이 잘 들여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거에요. 이 봄에 우리는 봄햇살 닮은 웃음으로 일상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로 해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글로 이 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건강한 아이를 낳든/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사회 환경을 개선하든/자기가 태어나기 전 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만들어놓고 떠나는 것/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음으로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수녀·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조 도 현

여경 채용목표제 공약 이행해야

1840년대에 미국에서 여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여자경찰을 채용하기 시작한 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전 경찰분야로 진출해 있으며 전체 경찰 중 여자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이 14.6%에 이르고 있다. 브라질은 여성경찰서를 두어 매매춘, 성폭력, 가정폭력을 전담하고 있으며, 여경의 비율이 17.5%인 영국도 각 경찰서 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전담하는 여경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호주 퀸즈랜드 경찰청의 경우 여경의 비율이 19%이지만 앞으로 남녀경찰의 비율을 50 : 50으로 한다는 목표아래 여경의 신규채용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고 있으며, 프랑스 20.2%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2%이상의 여경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경의 비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업무배치에 있어서도 여경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고용에 있어서 성 평등이라는 시대조류에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경찰의 역할이 과거의 육체적 물리력 중심으로부터 주민에 대한 써비스와 친화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여성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찰업무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경의 비율이 이제 겨우 4%를 맴돌고 있는데 경찰청은 앞으로 여경의 숫자를 전체 경찰의 10%까지 확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남녀구분 모집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경찰청이 반박자료로 보낸 공문서에서 "2005년부터 여경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2014년까지 여경비율 10% 확보를 목표로 매년 신규채용규모의 20~30%를 여성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경찰청의 발표대로 10년 동안 10%인 1만 명의 여경을 확보하려면, 순 증가인원 600명과 자연감소 인원을 포함하면 매년 최소한 800명을 신규 채용해야 함에도 2006년 겨우 404명을 채용했고, 금년에는 43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여경은 체력적 열세나 임신 등으로 현장 적응력이 떨어져 동료 남자경찰에게 부담이 된다는 경찰청의 반대이유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장비나 수사기법의 개발이나 과학화로 많이 퇴색하였으며, 나아가서 경찰의 모든 업무가 여성의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격렬한 업무인 것도 아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구속자 11명을 포함 116명의 범인을 검거하여 '다모대상'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윤순옥 경사가 좋은 사례다. 백보를 양보해 경찰의 특수성으로 남녀 구분모집 폐지가 당장은 어렵다면 중장기 과제로 더 연구 검토하더라도 최소한 약속한 채용 할당 인원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

군을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여성을 기피해 왔던 모든 직역에서도 금녀의 벽이 허물어진지 오래인 시점에서 경찰당국은 궁색한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평균 12%이상의 여경을 확보하고도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여경 활용실태와 대체복무 폐지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연구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경 또한 동료로서의 남경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당당한 프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학과장〉

기 고

문 인

시청 불법 점거농성을 바라보며

광주시청에서는 지난 3월 8일자로 청소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당한 입찰 절차를 거쳐 3월 2일 새로운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새 용역업체에서는 기존의 청소용역원에게 이력서를 제출토록 권유해 채용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청소용역원 23명은 시청에서 전원 고용승계를 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고 스스로 일자리를 포기했다.

시청사 청소용역원은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으로서 광주시의 직원이 아니다. 광주시에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정부는 IMF이후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청소업무를 민간에 맡기도록 권장하고 있다.

광주시도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민간업체에 청소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2004년 5월 청소용역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노조활동으로 인해 청소업무에 차질을 빚기 시작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민주노총과 연계,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4회에 걸쳐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해오다 지난 3월 7일에는 29명이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를 벌였다.

우리 광주는 과거 5·18민주화운동과 반독재 투쟁과정에서도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 주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와 6·15민족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상징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일부 노동자들이 지난해 '11·22 FTA 반대시위'를 하면서 시의 상징인 시기(市旗)를 불태우며 시청사를 파괴하는 폭력시위를 했다. 또 청소 용역원들은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시장실 복도를 점거, 지금까지 시민들이 힘들게 쌓아온 민주성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렵게 다져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반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토록 과격시위를 보고 국·내외 어떤 기업이 선뜻 광주에 투자를 하겠는가? 지역민 모두가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 과격투쟁에 발목이 잡혀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과격 폭력시위와 집단 행동은 평화를 사랑하는 142만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차제에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전하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으로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일 많고 고되기 만한 이장 처우 현실화해야

농촌 이장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개선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우스개 소리로 농촌에서 이장은 '논 서너마지기는 팔아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고 할 정도로 고되고 별로 득이 없는 직업이라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농민들 사이에 서로 이장을 안하려고 제비뽑기를 하거나, 돌아가며 하는 윤번제로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고장에서 제비뽑기로 이장을 선출하는데 70세 고령의 노인이 이장으로 뽑히는 일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장의 보수와 활동비, 각종 수당을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 농촌이라는 특수성과 젊은이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60대 이상의 고령노인들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적정한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장애인 단체 이름 빌려 물품 강매 해서야

교직에서 평생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을 한 친척이 큰 표창을 받아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후 전국 각처에서 무슨 무슨 장애인 협회라며 벽시계·조각품 등 물품을 사라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택배로 물품을 보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을 진정으로 돕고 재활을 위해 힘써 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라는 이름을 빌어 물품을 강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장애인 명의를 빌려 유령 장애인 단체를 세우고 전국의 기업체나 관공서, 종교단체등을 돌면서 화장지 등 생필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 설

광주·전남 고교 실력 하향 평준화 우려된다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광주·전남 고교 가운데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은 2년째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가 나오지 않아 실력 하향평준화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정시·수시 모집에서 전국적으로 52개 학교가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반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광주 과학고 등 3개교가 가장 많은 7명을 냈을 뿐이다. 전체 합격자 수도 지난해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과 비교해도 지역 고교의 성적은 뒤떨어진다.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의 경우 대구 5개교, 부산 3개교, 대전 2개교, 인천과 전북 각 1개교에 달했다. 전체 합격자 수에서도 광주는 부산, 대구, 인천은 물론 대전에 비해서도 뒤졌다.

명문대 신입생을 배출한 학교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줄 세우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대 합격자 수가 명문고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이미 명문대 합격자 분석 자료 공개는 일반화됐고 특목고 설립 등으로 고교 평준화는 이미 부분적으로 깨졌다. 학교 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 것이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중등학교의 수업 시간 늘리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도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교사 평가제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 학력의 질이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고교의 실력 하향 평준화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이 지역을 외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육여건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반계 고교 선택권 확대,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 등 실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일자리 30만개 창출' 헛구호에 그치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6만2천명으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30만명을 밑돌았다. 30만명은 정부가 올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목표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46만1천명으로 1999년 6월 구직자 기준 변경 이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구직 단념자도 14만1천명으로 2005년 8월 14만8천명 이후 가장 많았다. 침체된 고용시장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3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대 10만명, 20대 6만1천명, 10대(15~19세) 8천명 등의 감소세를 보였다. 40대 이상 취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실질적 일자리 대신 설 명절의 영향으로 택배와 선물포장 등 임시직 일자리가 증가한데 따른 영향이 컸다고 한다.

고용시장이 개선될 기미도 별로 없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게 잡았다. 2005년 말 35~40만개는 물론이고 지난해 하반기에 수정했던 35만개에도 못미친다. 이런 목표치마저 6개월 연속 미달한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인구의 3분의 1 수준에 이른 것은 국가적 노동력의 낭비다.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구직 단념자의 급증에서 드러나듯 근로의욕 자체를 잃고 만다. 또 빈곤층이 늘어나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하지만 경제성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최소한 3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만은 달성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고로쇠 수액

고로쇠의 한자 이름은 뼈에 이로운 나무라는 뜻의 골리수(骨利樹)다. 통일신라 말 도선 국사가 고로쇠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먹고 무릎이 나았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실제 고로쇠 수액에는 뼈에 이로운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성분이 풍부하다. 뼈에 좋을 뿐 아니라 위장병과 신경통, 여성의 산후 조리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낮과 밤의 온도 차를 이용한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나무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나무의 물관에 녹아들면서 진공상태로 변한다. 반대로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기체가 팽창하면서 그 압력으로 수액이 나무 상처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17일 장성에서 고로쇠 축제가 열리는 등 고로쇠 수액 채취와 판매가 한창이다. 그러나 판매 실적이 예년만 못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따뜻한 날씨로 수액 채취량이 늘어난 반면 소비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시·군에서 고로쇠 나무를 많이 심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재배면적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허다하다. 겨울배추가 그렇고 복분자, 연, 석류, 해바라기 등도 사정이 유사하다. 보성이 주산지인 녹차는 전남과 경남 인근 시·군으로 재배면적이 확산되더니 이제는 제주도에서 까지 감귤 대체작목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조경용 잔디가 고소득 작목으로 평가되면서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면서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다는 점이 일부 작목의 과잉재배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정 작물의 수익이 괜찮다는 입소문이 나면 너나없이 경쟁적으로 재배에 나서고 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수록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농사지어 돈 벌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